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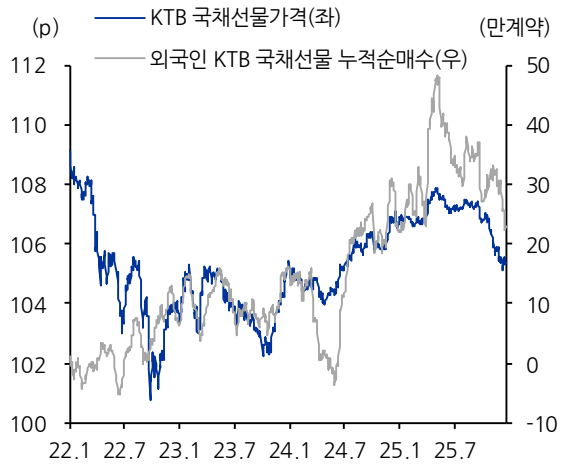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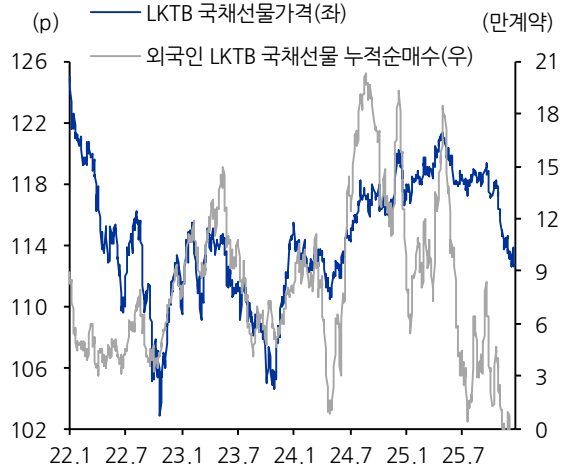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2/2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99%	-1.1	-0.1	40.3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59%	1.7	3.4	50.4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6.0	33.2	32.5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40	7.0	-16.0	-125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2.68	3.0	-114.0	-42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08%	2.3	0.6	-73.2
	미국채 10년물	4.165%	1.6	-0.9	-40.7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65.7	66.3	67.2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896%	0.1	4.6	53.3
	호주국채 10년물	4.794%	4.4	6.8	4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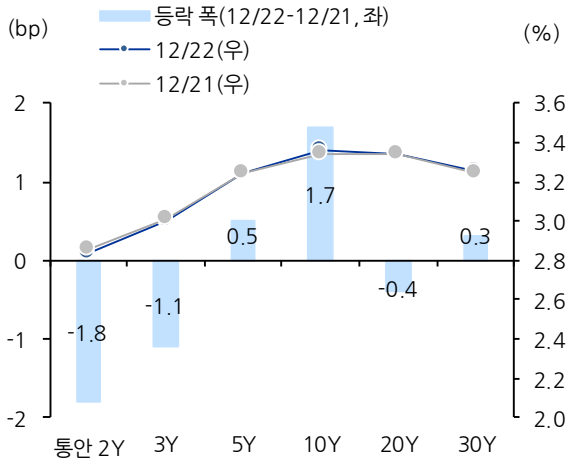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장단기 방향성 엇갈리며 혼조 마감.
- 전일 BOJ 결정에 글로벌 채권 약세 기조 및 국내 20일 수출 호조 등에도 국내 금리는 하락 출발. 국채선물 저평가 흐름으로 국채선물 매수세 유입됐으며, 외국인 매수세도 지속됨.
- 원/달러 환율이 1,480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금리 하락 폭 일부 반납하기 시작. BOJ 예산 등 재정 우려도 다시 불거지며 일본, 호주 등 아시아 금리 상승한 것도 영향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소폭 약세 마감.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거래량 축소.
- BOJ 여파 계속됨. 일본 2026년 예산과 국채발행계획으로 채권시장 공급 우려 자극된 가운데,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우려도 지속.
- 내년 FOMC 투표권을 가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내년 봄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끝내야한다고 발언한 것도 영향. 2년 국채 입찰은 양호한 수준에서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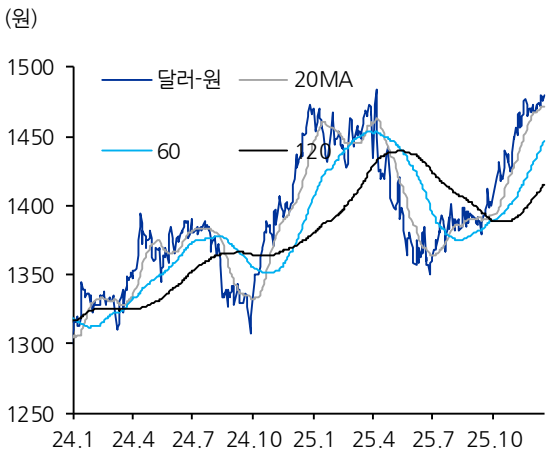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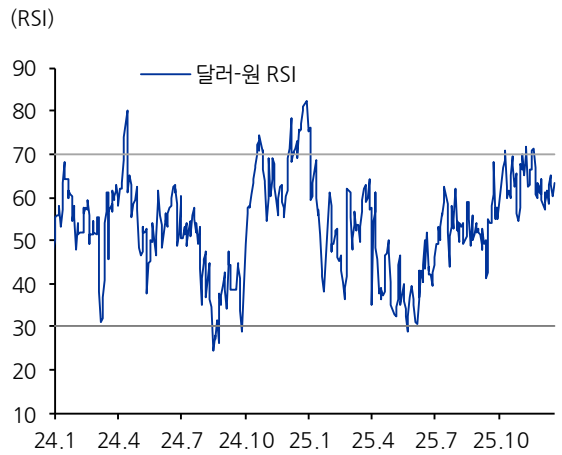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2/22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80.10	0.3%	0.6%	0.5%
	달러지수	98.30	-0.4%	0.0%	-9.4%
	달러/유로	1.176	0.4%	0.0%	13.5%
	위안/달러(역외)	7.03	0.0%	-0.2%	-4.1%
	엔/달러	157.00	-0.4%	1.1%	-0.1%
	달러/파운드	1.346	0.6%	0.6%	7.5%
	헤알/달러	5.59	0.8%	3.1%	-9.7%
상품	WTI 근월물($)	57.96	2.3%	2.0%	-19.2%
	금 현물($)	4,438.83	2.3%	3.1%	69.1%
	비트코인($)	88,280.00	0.2%	2.7%	-6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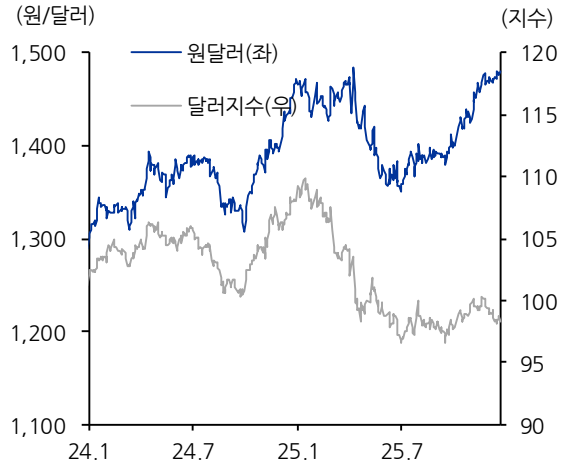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80원 상승한 1,480.1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81.00원 마감.
- 전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 출발한 달러-원은 당국 개입 속 개입 경계심이 유지되었으나, 달러 저점 매수와 달러-엔 고점 유지에 연동되며 1,480원선으로 상승.
- BOJ 금리 인상에도 달러-엔은 견조한 흐름을 보임. 일본 재무성의 구두개입 및 중국 LPR 동결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맞물리며 달러 강세를 지지. 주식시장 호조에도 환율 하방 압력은 제한됨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엔화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락.
- 일본 재무성·관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의 연이은 구두개입 발언 이후 달러-엔은 뉴욕장에서 156엔대로 하락.
- 일본 정부는 최근 엔화 약세를 투기적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연말 유동성 저하 국면에서의 개입 가능성을 재차 경고. 다만 시장에서는 재정정책 리스크 관리 신호가 없는 한 실질 개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.
- 미국은 주요 지표 부재 속 연준 내 추가 완화 기대가 다소 후퇴.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12월보다 공격적 인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언급.